

삼겹살サムギョプサル / 06.10



오늘은 일본에서 온 아티스트와 함께 현지에서 인기 있는 삼겹살집에 갔다. 그는 부산과 광주 비엔날레를 보러 왔다고 했다.

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, 평소에 찍은 사진을 몇 년 치나 아카이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사진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으며,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두면 언젠가 무언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. 다만 지금까지 실제로 활용된 건 친구의 결혼식 슬라이드쇼에 사진을 제공한 정도라고 한다.

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갈 시간이 늦어져 택시를 탔는데, 어쩐 일인지 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서 당황했다.

今日は、日本からやってきたアーティストと、地元で人気のサムギョプサルのお店に行った。釜山や光州のビエンナーレを訪れていたという。

いろいろと話している中で、日々撮った写真を何年分もアーカイブしていると教えてくれた。すべてきれいに整理して保存しており、こうして記録として残しておけば、いつか何かの役に立つかもしれないと話していた。ただ、これまで実際に活用されたのは、友人の結婚式のスライドショーに写真を提供したときくらいだという。

そんな話をしているうちに帰りが遅くなり、タクシーに乗ったところ、なぜか家とはまったく違う方向に走り出してしまい、困った。